

II. 主要 懸案

1. 最近의 金融産業 改編 論議

- (背景) 新經濟 5個年計劃의 金融自律化 추진 일환으로 金融産業 改編에 관한 多角的인 논의 진행 및 정부 방침의 구체화
- (意義) 금융산업 개편의 의의는 금융자율화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效率性 제고 및 금융산업의 競爭力 강화를 위한 금융 부문간 업무 영역의 조정에 있음
- (主要 內容) 정부가 밝힌 금융산업 개편과 관련된 주된 이슈는 대략, 銀行의 大型化 및 信託構造 개선, 證券/投信社 간의 업무 영역의 조정, 保險社의 自律運用 資産制度의 도입, 投金社의 綜金社로의 전환 허용, 銀行預金 保險制度의 도입 및 貸金業의 도입 검토 등임
- (評價 및 補完点) 금융산업 개편은 국내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에 따라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의 차원에서 정부가 最小限의 기준은 정하되 金融圈에 自律性을 最大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背景) 신경제 5개년계획의 금융자율화 추진 일환으로 금융산업 개편에 관한 다각적인 논의 진행 및 정부 방침의 구체화

- WTO 체제의 출범 및 한국의 향후 OECD 가입과 관련, 金融自由化와 開放化 진전에 따른 국내 금융산업의 개편 필요성이 제고되었음
-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지난 5월 18일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개혁 방향'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밝힌 바에 의하면 本格的 金融産業 개편에 따른 금융산업 개편 방안은 오는 6월 말까지 제시될 것임

- (意義) 금융산업 개편의 의의는 국내 금융시장의 效率性 제고 및 금융산업의 競爭力 강화를 위한 금융 부문간 업무 영역의 조정에 있음

- 현재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은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의 金融 統制로 경쟁이 제한되어 있고 아울러 타영역의 참여도 정책 필요에 따라 수시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이번 금융산업 개편안의 主眼点은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는 方向에서 금융 부문간 균형을 위한 합리적 조정에 있음

- (主要 內容) 정부가 밝힌 금융산업 개편과 관련된 주된 이슈는 대략, 은행의 대

형화 및 신탁구조 개선, 증권/투신사 간의 업무 영역의 조정, 보험사의 자율운용 자산제도의 도입, 투금사의 종금사로의 전환 허용, 은행예금 보험제도의 도입 및 대금업 제도의 도입 검토 등임

- (1) 은행의 대형화 및 신탁구조 개선
 - 은행의 합병을 통한 대형화, 합병과 관련된 稅制上的 혜택
 - 은행의 신탁제도는 기본적으로 실적배당에 입각한 신탁의 본질에 합당하게 개선, 은행계정처럼 은행 신탁대출에 대해 同一人 與信限度 설정
 - (2)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간의 업무 영역의 조정
 - 複數의 증권사가 컨소시엄으로 子會社 형태의 단일 투신사를 설립
 - 투자자문사의 일임매매 및 증자의 허용
 - (3) 보험회사의 자율운용 자산제도의 도입
 - 총자산의 1% 한도내에서 자유로운 자산운용을 허용
 - 向後 성과에 따라 자율운용 자산범위를 확대
 - (4) 투자금융회사의 종합금융회사로의 전환 허용
 - 단사업무와 종금업무를 통합하여 特化된 종금사를 설립
 - 短期金融, 國際金融, 企業金融이란 3개 영역으로 특화시켜 종금사로의 전환 유도
 - (5) 은행예금 보험제도의 도입
 - 현재 비은행권인 투금, 종금, 상호신용금고에는 이미 적용
 - 은행권의 경우에도 금융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로서 내년에 도입할 예정
 - (6) 대금업의 도입 검토
 - 私金融의 陽性化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
 - 그러나, 대금업자의 高率, 과잉 용자, 대출채권 불법 회수 등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감독 곤란 등의 부작용 우려
 - 대금업의 도입에 대한 視角은 否定的임
- (評價 및 補完点) 금융산업 개편은 국내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에 따라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의 차원에서 정부가 最小限의 기준은 정하되 金融圈에 자율성을 最大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금융시장의 개방에 대비, 은행의 대형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

- 하나 합병으로 인한 자산 규모의 확대가 반드시 規模의 經濟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힘듦
- 또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합병을 통한 대형화는 人事問題, 조직 내 갈등 등 많은
부작용 초래. 따라서 구조적 대형화와 함께 차별화를 살리는 은행의 專門化도 고
려하여야 할 것이며 대형은행과 중소 專業銀行이 분업적으로 공존함이 바람직함
 - 무리한 대형화보다는 내부 효율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 은행권이 소
수의 대형은행들로 편제될 경우 기업의 정상적 자금 수요가 시장의 완전 경쟁적
여건 하에 충족되기는 어려움
- 證券, 投信社 간의 업무 영역의 조정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증권산업을 개편코자 하
는 것으로 보이며 증권사의 투자 신탁업 진출에 따른 소유 구조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음
- 기본적으로 상호 진출을 허용하면서 가능한 人爲性을 배제하고 관련 기관의 자율
적 의사결정에 맡김이 바람직. 상호간 兼營으로 인해 증권산업의 활황을 예상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자금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리라 예상됨
- 銀行預金 保險制度의 취지는 은행 파산 시 예금주 보호 이외에 궁극적으로 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금융시장 교란 예방에 있으므로 이의 도입은 금융시장 특히 은행권
의 안정성 확보와 사회적 신뢰감 조성에 중요
- 기업의 입장에서는 은행의 적극적 경영 및 과도한 위험 부담에 따른 반사적 이익
이 예상됨. 특히 예금 보험기관의 예금 보험료가 은행으로부터 예금자에 轉嫁되
지 않도록 하고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안전판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행
의 무분별한 경영을 감시할 제도적 방안이 필요
- 貸金業 制度의 導入은 음성적 사금융을 양성화하여 稅收을 확보하고 실제 사채 수
요계층을 제도 금융권으로 흡수하여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그러나, 영세한
자금 수요자가 많은 이상 高率 금리가 예상되며, 이를 노린 과잉 용자, 대출채권에
대한 불법 회수 등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감독 곤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
- 이의 도입에 否定的이라고 하나 그에 대한 대안이 향후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
가 있음. 이의 즉시 도입이 현실상 시기상조라면 서민과 밀접한 금융기관을 육성
하고 금융상품을 개발해 나감이 바람직할 것임
 - 事後管理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금업 제도를 도입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私債市場의 양성화는 요원할 것임

(이 승 명)